



'2017 전국생활문화축제'

# 생활문화방담회 생활문화 요모조모

결과 자료 집



생활문화진흥원

## 『생활문화 요모조모』 결과자료집

- 행사: 2017 전국생활문화축제 생활문화방담회 - 생활문화 요모조모
- 일시: 2017. 9. 8.(금) 14:00~16:30
- 장소: 예술가의집 다목적홀
- 진행: 행사진행/유상진(생활문화진흥원 정책사업팀장), 방담회진행/임승관(인천문화바람 대표)
- 패널: 김유진(문화기획자), 백선혜(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문예진(대구문화재단 생활문화팀장)
- 방담주제
  - 요모조모 1. 모호한 생활문화 정의 및 영역, 어떻게 하지?
  - 요모조모 2.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어떤 방식이 좋을까?
  - 요모조모 3. 전국생활문화축제, 짝사랑 말고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 방담회 진행결과

### 임승관(진행)

오늘의 논의는 3가지 주제입니다. 첫째로 생활문화영역은 어디까지이고, 생활문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원해야하는가.

두 번째로는 이에 따른 지원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동안의 실패사례도 있었으니 그것들을 공유하면서 완벽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이런 것은 피해야한다라는 걸 공유하고자 하며, 그리고 세 번째로 정부가 진행하는 생활문화축제의 의미와 지속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생활문화입니다.

생활문화라고도 하고 생활예술이라고도 하는데, 법에서는 생활문화를 ‘지역 주민들이 문화적 욕구를 충족해서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여기서 ‘문화적’이라는 단어를 빼면 생활문화란 ‘지역주민이 욕구를 충족해서 자발적이고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유·무형의 활동’. 즉 모든 게 다예요. 지역에서 일어나는 개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협업을 하거나 기획을 해서 추진 한다거나. 그런데 생활문화가 그 모든 것들의 영향을 분출하고 이루는 것과 다른 것은 ‘문화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적’이 도대체 뭐길래, 또 궁금해졌습니다. 문화적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활문화가 예술분야에서 도드라지기는 한 것 같고 사회전반에 영향을 끼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생활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 김유진

1번의 주제에 대한 답을 제일 많이 준비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앞에서 해주셨는데 ‘문화적’이란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사랑방 문화클럽 네트워크를 시작 하면서 생활문화에 관련된 현장에 10년 넘게 있었습니다. 2~3년 전부터 생활문화의 정의가 무엇이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연구 쪽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벌어졌었는데 매번 이야기 할 때마다 협의가 안 되고 질문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이 질문이 다시 등장했을때 소모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생활문화의 정의라고 주어졌는데 이 정의라는 것은 행정의 쓰임을 위한 조작적 정의라기 보단, 생활문화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컨센서스 관한 이야기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컨센서스가 뭐냐’라는 것인데 생활문화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하면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일상의 행복을 위한 문화다’, ‘자존감을 올려주는 문화적 활동이다’, ‘그러한 것들이 일상에 변화를 가져온다.’ 이런 식으로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변화라는 게 문화적 변화인데, 변화의 근거가 무엇인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문화적 변화가 왔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구요. 문화적 변화가 일어난 상황을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로빈스 크루소. 무인도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혼자 살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문화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문화적 변화가 생기는 계기가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우연히 누가 쓴 책을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 집짓는 방법이 자세하게 되어있고 이런 집에 살면 행복하고 쾌적하다라고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빈스 크루소가 이걸 보고 감동을 받는거죠. 해보고. 자기만의 세상을 살다가 저자와의 관계가 생기면서 문화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거 같아요. 그러다가 섬 반대편에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의 생존법으로 살고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동질감을 느끼고 그 사람을 통해 내 삶에 동력을 만드는 거죠. 문화의 본질은 관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구요.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생활문화를 사업적으로 볼 때, 지역문화진흥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동호회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생활문화 동호회가 뭐고 무슨 관계인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모임이 아닌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개인들이 하는 거는 문화가 아닌거야? 라는 의문이 들죠. 좀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보면 모임이라는 것을 너무 협소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계형성의 모임은 여러 가지 형태일 수도 있잖아요.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마을일 수도 있죠. 마을사업도 생활문화 활동과 아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관계를 형성한 어떤 모임 속에서 태어난 문화를 가지고 생활문화라고 하는 게 아닐까 라고 저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어요. 이 모임들을 통해서 나온 문화들을 좀 더 현대적인 말로 표현을 하면 이런 게 아닐까... 라고요.

누가 “생활문화가 뭐야” 라고 저에게 물어보면 ‘더 나은 문화적 삶을 꿈꿀 권리’ 같은 게 아닐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원룸에서 사는 청년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건축상을 받은 건물인데 하늘이 보이는 원룸을 만들어 상을 받았더라구요, 제가 그걸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했을 때 정말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거든요. 원하는 게 원룸을 투룸으로 만들고 30평 아파트로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떤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원하는 것. 이러한 것에 사람들의 욕망이 잠재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계는 비교우위하고는 다른 거 같고요. 지금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존감과 자신감이 다르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동호회라는 비교우위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느 동호회가 잘하고 못하고, 혹은 저 동호회와 우리 동호회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이렇게 비교우위를 생각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났을 때 행복해지고 자존감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느슨한 관계든 강렬한 관계든 비교가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 같고, 비교가 들어오게 되면 더 잘해야 되잖아요, 성과를 내야하니깐. 그렇게 되면 목표를 향해서 협력을 안 하고 분업을 하게 되죠. 이런걸 한국 사람들은 엄청 잘하죠. 가르치지 않아도. 예를 들면 엠티를 가게 되면 엠티를 왜 가야하지, 어디를 가면 행복하지, 모두가 원하는 장소야 이런 식의 질문을 하지 않고, 그럼 난 차를 가져올게, 난 음식을 가져올게, 이렇게 기능적 분업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안에서 대화는 다 삭제가 되요.

삭제되었다는 걸 무의식중에도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이런 식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과정이 없다면 비교를 하게 되는거고 과정이 없다면 비교가 촉진되고 다시 비교를 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분업이 아닌 협력을 형성하게 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아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죠.

체험이 아닌 경험이 필요한데, 체험은 어떤 시간을 소비하는 행위죠. 경험은 그런게 아니고 무언가 하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시간들을 스스로 나름의 해석을 해가며 의미를 만드는 행위인거 같아요. 이게 지속가능성이랑 맞물리는건데, 이 지속가능한 생활문화활동이라는 것이 무엇이나 질문을 할 때, 백년동안 동호회가 지속되어야 지속가능성일까요? 근데 사실 사업을 그렇게 하라고 하죠. 동호회가 하나 생기면 그 동호회 숫자를 세서 그게 백년간 지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굉장히 이상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아요. 왜 묻지 않냐면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른 정의가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속가능성은 제 생각에는 경험인거 같아요. 어떤 종류의 활동을 하면 그 활동이 의미가 되어서 계속 다른 종류의 의미를 연쇄적으로 낳는 식으로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을 말 하는 것 같구요. 이제 우리는 지속가능한 활동이 아니라 지속가능 의미를 물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잘 되는 사례도 보면, 예를 들면 3개월간 춤을 춘 과정이 너무 강렬해서 내년이 되면 알아서 그 사람들이 모이고 그 활동을 계속 해나가려는 시도들을 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요점 정리를 하면 4가지 이슈가 있는 거 같다. 소비대신 관계, 분업대신 협력, 체험대신 경험, 지속적 활동 대신 지속적 의미 이런 식으로 제 생각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 이슈 모두 상관성이 있고, 이것을 함께 묶어서 덩어리로 만들어 우리가 사는 방식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임승관(진행)**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유진 선생님께서는 사회적 관계가 생활문화의 큰 기둥이며, 관계/협력/물리적인 지속가능성보다는 '의미의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 하셨습니다.

자, 주제를 이어, 대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봅니다.

대구에는 생활문화축제 등 다양한 생활문화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대구문화재단 문예진 팀장님께, 묻습니다. 생활문화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 문예진

대구시에서 정책적으로 생활문화 활성화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재단에 12억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단에 생활문화 확산 미션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번 2017년 전국생활문화축제 추진단 참여를 하면서 생활문화 사업 하시는 분들 뵈면서 같은 고민이 있단걸 알게 되었어요. 생활문화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실제 참여하시는 주민분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해 어려웠던 경험도 비슷했어요.

작년 1년동안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고민했어요. 생활문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생활문화 정책은 잘 모으는 사람들, 예술로 잘 노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작년 사업을 처음 진행해 보면서는 생활문화정책사업이 단순히 생활문화동호회를 잘 운영 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생활이 곧 문화라는 이해에서 출발해 아직은 잘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동아리 뿐 아니라 시민들의 모든 활동은 생활문화이고, 이러한 시민문화의 저변을 넓혀나가는 방향속에서 동호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 관련으로 몇 가지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나름대로 정리해봤는데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생활문화 사업의 현재 문제점은 전체 생활문화사업에서 동호회가 마치 생활문화 사업의 전체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생활문화를 융성 정책의 의미가 정확히 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목적에서 생활문화를 만들어 지역마다 뿌려주는 사업인데 진정한 생활문화 확산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이번 정부가 국민들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있구나 하는 의미를 가지고 싶은건지 궁금해집니다. 문화의 진정한 융성을 기대하고 국민이 행복하길 바란다면 진짜 생활문화 확산이 가능하게끔 지원방향을 달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동호회 중심으로 생활문화가 지원되다보면 지원범주에서 제외되는 시민이 많다는 것입니다. 동호회 뿐 아니라 전체적인 계층, 연령 고려되어 정책대상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호회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좀 더 체계화된 지원방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예술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 차이는 있을테니 이제는 교육과 생활문화의 구분과 체계를 갖추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나름의 개선방안을 나름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번째는 생활문화의 다양한 가능성을 찾아내서 엄청 큰 발표회, 생활문화센터 등 큰 규모의 지원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소소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을 찾아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평가방식에서도 계량적인 수치보다 이 사업에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발전되었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관계가 좋아졌고 얼마나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성과를 묻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간지원도 마찬가지로 큰 규모의 공간을 시민활동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것도 좋지만, 이미 시민들의 활성화된 작은 거점들인 동네 작은 공방, 책방, 카페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동네에서 슬리퍼 끌고 나가, 스스로 이미 하고 있는 활동이나 관심있었던 소소한 활동을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접하고, 활동할수 있는 공간에 대한 지원방식이 필

요하다고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동호회 분들은 일반시민들이고 생활문화 코디네이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가 제가 생활문화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제가 지역 현장에서 느껴왔었던, 어려운 지점들, 고민했던 부분들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 **임승관(진행)**

많은 부분을 들으면서 공감하셨는데요.

계층의 보편성. 소외되거나 배타적이면 안 되잖아요.

또한 생활문화의 평가방식에 대해서는 명확히 점수가 드러나는 생활체육과는 달리 생활예술은 다른 측면이 있잖아요. 이러한 평가기준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제 정책적 차원에서 생활문화를 보도록 합시다.

### **백선헤**

앞의 두 분 패널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공감을 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임승관 선생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시면서, 서울이 앞서나간다고 소개하셨지만 저희도 굉장히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가 작년에 저희 연구원에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었는데 그 과제를 발의하고 진행하는 것 또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연구원 자체가 서울 시정 전체를 연구하는 기관이다 보니 생활문화가 뭐냐, 왜 지원을 해야하나부터 시작해서 생활문화, 생활예술을 하는데 너무 과한목표를 설정하는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고민이 많았습니다.

생활문화가 무엇이나, 문화의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이나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오늘은 그런 고민을 나누는 의미에서 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

아까 김유진 선생님이 관계라는 것을 강조해주셨다. 문화는 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닐까. 저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였습니다. 정책적 차원에서 봤을 때 생활문화를 왜 지원하느냐? 저는 사회의 존망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의 정의로 보면, 문화는 사람들에게만 존재하는 것이다. 동물도 집단 생활을 하지만 그들에게 문화를 붙이지는 않잖아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문화라는 현상인데 그 문화가 왜 생겼나. 저는 그것이 생존을 위해서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살아갈 수 있는 기술. 처음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인간이 워낙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수렵채취 시대를 생각해 보면,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었던 거죠. 공동체로 생활로 모여서 생활하다보니 그 안에서의 교육, 법, 정치가 생기고 아주 필수적인 부분들은 법률이라는 형태로 고착이 되었다는 것. 사회적 약속들이 문화를 통칭하는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공동체를 유지하는 인간의 생존 기술을 전달하는 체계가 ‘문화’ 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더 중요해진 부분은 소통이죠. 자기표현. 너무나 다양한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는 부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 그리고 자기 자신을 표현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공감하고 이해하느냐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시장주의, 개인주의적인 게 강조되는 사회죠. 경쟁이니 비교니 그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개인의 스펙쌓기, 역량 부분이 굉장히 발전하였죠. 그 가운데 그런 과정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협동하고 협력하는 기술들은 상당히 도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로 경쟁하고 내가 안 하면

남이 뺏어가니까 나는 이겨야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가속화 되다보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결국 붕괴하게 될 것이라고도 생각해봅니다. 그런 위험을 막고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갈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생활문화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상 생활문화의 정의가 ‘지역주민이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있으니까 무엇이 생활문화냐는 부분에서 파고들어가며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무엇이 문화적 활동이지? 에서 장르를 나누게 되는데, 저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왜 이것을 정말로 해야 하느냐, ‘왜’ 라는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정책적으로 왜 하느냐? 라는 부분을 접근하게 되는거죠. 왜 하느냐로 봤을 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일상을 연결 짓는 기준이 생활문화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술이다, 생활문화다.’ 혼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술 활동이라는 것은 문화적인 자기 표현, 최고수준에 정표화된 장치로, 문학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장치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발전시켜온 수단 및 형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활문화 중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수단 중에 가장 고도화된 수단이 예술적인 장치들이기 때문에 생활문화가 생활예술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공동체를 예술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고 생활문화정책도 공동체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생활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차원에서 생활문화에 접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문화의 영역은 개인적인 영역에서부터 공동체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책적으로 접근해야하는 부분은 공동체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동호회에 대한 지원인데 동호회 개별에 대해 활동비를 주는 지원이 아니라 동호회 내부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 지역 간 교류할 수 있는 것까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책적 시각에서 봤을 때 ‘동호회 간에 네트워크 지원’,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지원으로 가는 것이 옳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임승관(진행)**

생활체육은 40년 째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체력은 국력’이라는 국가적 방침으로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있기도 하죠. 생활예술을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기술, 즉 생존의 방식이라고 말씀 해 주셨는데요. 늘 생활체육과 같이 생활예술도 강력한 사회적 필요를 느끼게 하는 힘을 지닐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더욱 공감아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희망제작소에서 시대정신을 조사했었습니다. 안전한 놀이터와 지속가능한 생활예술. 마음대로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다. 없다는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활에 대한 불안함이 발현된 결과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산업혁명 시대를 관통 해 왔습니다. 산업혁명 시대는 사실 집단주의에, 국가주의고 획일적 애국심으로 통일 되어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공동체로 갈망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성과 과거의 집단주의와는 분명히 다르고, 이것에 대한 구별이 잘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 해 봅니다.

자연스럽게 정책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봅니다.

## 김유진

공동체라는 단어가 오염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라는 말 대신, '모임'이나 '관계'라는 단어를 씁니다. '커뮤니티'라는 말도 혼동을 준다고 보는데요, 예술가들이 자기 작업의 소재로 공동체를 삼는 것 하고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용어들의 혼선들이 굉장히 있는데 위험한 단어는 피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새로운 용어들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과 '공동체'. 이에 대한 질문은 정말 많이 들은 질문입니다. 학교생활, 부대생활, 회사생활을 하고 나서 공동체에 대해 회의를 갖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권한을 공동체 안에서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작년부터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개인도 공동체도 둘다 필요한데, 우리가 너무 이분법으로 극단화해서 개인vs공동체를 구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방향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고. 개인주의적 권리에 대한 얘기는 또 따로 해야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꾸 대입하고 선택을 하라는 경향이 세지는 것 같은데, 이는 지양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정책과 연결해 이야기하면 정책에도 역사가 있습니다. 생활문화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변두리에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 분야였다가, 학교 동아리 활동 등 각자의 활동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생활문화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사실 생활문화가 지난 몇 년 사이에 갑자기 크게 대두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정책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을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축을 놓고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모임을 우리 사회에서 구성하는 방법이 어떻게 변화 되었나라는 측면에서 보면, 90년대 중반에는 학습의 관점이 굉장히 강했죠. 평생학습센터가 있어서 거기 안에서 강의를 하면서 강의 안에서 사람들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하니 학습센터를 육성했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었는데, 가르치는 선생님 없이는 동호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렸고, 모임 대표를 자청하면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고 보여줍니다.

### 현장 플로어 참여 토론 ①

현재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에 있는 이수철입니다.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일상의 연대와 도시공동체의 조건입니다. 성남의 자발적 결사체를 중심으로 '인권', '자살', '행복'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지표를 만드는 걸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유상진 팀장님(생활문화진흥원) 이후에 성남문화재단에 와서 평가기준을 세울 때 꼭 듣는 질문 중 하나가 결국 성남 사랑방클럽이 한 게 무엇이냐 하는 역습이었다. 그럴 때마다 저는, '10년을 지속했다. 앞으로 10년도 지속될 수 있고, 성과가 있다면, 더 많은 동아리들이 참여할 수 있고, 아니면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대응했었는데, 사실상 이것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반문해 보기도 합니다.

2008년도에 성남시에서 생활문화 동호회 조사를 해봤을 때 30%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2013년도에 조사했을 때는 50%. 저는 이게 대단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50% 수치란건, 10명 중에 5명인데 한 다리 건너면 다 주변에서 동호회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 수치에 대해서 늘리려는 생각을 안 가졌으면 하는데요.



그 다음에 센터라던가 재단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모든 생활문화 동아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 지원의 영역, 정책의 영역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는 생각을 벗어나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의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이 문화인데 그것을 진흥해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방향성이 있는 거고 생활 자체를 진흥해야한다는 것은 지금 생활이 그렇지 못하다는 반증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김유진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기계적인 분업일 것 입니다. 그냥 의미 없이 하기 때문에 그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발성이 있어야하고 자기의 창조성이 들어가는 분업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 활동이 반드시 같이 가야하는 활동이 아닌가.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예술의 의미를 폭넓게 확산해보면 예술생활은 예술활동을 하는 생활일 것이다. 생활예술은 생활 자체가 예술이 될 수 있고 예술적 속성을 가지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정책의 지점은 그 지점을 포커스를 맞추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에서는 사랑방 같은 경우에는 예술을 같이 하는 지점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정책이 모든 것을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포커스를 맞춘 가는게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란 생각을 해봅니다.

정책을 할 때 생활문화라는 개념 자체가 포괄적일 때는 최대한의 법칙보다는 최소한의 법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다. 최대한으로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최소한 이것 정도는 해야겠다는 정책으로 하는 것. 예술동아리 이것만 해서 그것만 문화냐 라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저희는 편하게 예술동아리가 문화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니 최소한은 이것을 해보자라는 최소한의 법칙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최대한으로 확장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 임승관(진행)

성남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평가, 자발성과 창조성이 발현되는 공동체에 대한 것, 정의 등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생기고 있다고 보고요, 문화가 커지는 생활 질서가 생기는데, 이러한 인간의 본성이 사회적, 관계적인 속성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현장 플로어 참여 토론 ②

안녕하세요. 저는 주성진이라고 합니다.

생활문화 얘기는 들을수록 어려운 것 같은데 관계라는 말이 많이 귀에 많이 들어오네요.

관계라는 말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어쨌든 생활문화라는 것이 기존 지원사업의 한계를 넘어서려면 지원의 대상이 개인이 되어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계라는 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당연히 관계의 주체가 되는 개인을 지원해야하는 사업이지 공동체를 지원해야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개인을 지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동체를 지원하는 것이 될 것일텐데요. 물론 쉽게 이루어지기 않을거라 생각합니다만.

두 번째로는 거칠에 이야기 한다면 게임도 지원해야한다고 봅니다. 생활문화예술 게임하면 어색하게 들리지만 문화콘텐츠 지원하는 것은 게임, 애니메이션이 가장 많음. 청년층을 대상으로 제일 많은 공동체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적 정의의 청년을 넘어서긴 했지만 아내랑 게임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게임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게임만 열심히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소통이 이루어지고 게임 중에서 잘 되었던 부분을 영상으로 만들고 영상을 뮤직비디오로 만들고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된 영상을 보고 서로

피드백을 주면서 다른 관계들을 만나서 동아리가 성장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도 생활문화라고 보았을 때, 우리가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 개인의 거실, 방까지.. 더 개인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마치 새마을 운동에서 건전한 정신을 얘기할 때 하찮다고 여겨지지만 실제로 하찮지 않은 것들을 아직도 배제하고 있는 내용적인 관계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임, 체육이 그 경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결국, 이유는 하나라고 봅니다. 소관부처가 달라지기 때문에.

생활문화라는 정의자체도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원래 해왔었는데 행정에서 이름을 붙이고 관리하기 좋은 것을 떼어놓고 봤을 때 개인과 게임은 당연히 생활문화에서 다룰 수 분야로 들어와 있어야 하지 아닐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 김유진

예민한 이야기가 나왔길래. 저도 게임하다 결혼했거든요.

게임하면 문화콘텐츠, 순수예술과 생활문화만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쪽에 문화콘텐츠도 하나 있는 것 같거든요. 3개가 소관부처에 따라 영역을 나누다보니 생활문화 쪽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시니어들, 주부들, 이런 쪽으로 영역을 하나 가지고 있고 청년들은 문화콘텐츠 중심으로 되어있다. 실제로 예술가들 있고, 이런 느낌입니다.

이 앞에서 이야기 되었던 분업이랑 연결이 되는데 이런 식의 분업들이 사업 정책이랑 연결해서 이야기 하려했던 내용인데, 모임하는 방법에 시대적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아까 끊어진 이야기인데, 90년대 중후반에 학습 중심으로 사업을 육성하다가 게임이 30대 중후반에 플랫폼 중심으로 나왔었죠. 플랫폼이 있을 때 게임이라는 동일한 체험을 가진 자발적 소모임들이 생겼던 거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개인을 지원해야한다는 것과 연결될 수 있는데, 2~3년 전부터 제가 느끼는 것은 시민참여에 관한 사업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사람은 모으는데 모아지지 않는 거예요. 예전처럼 동원도 못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업들은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오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거나 모임 자체가 하향화되는 식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담당자도 어떻게 홍보해야하나 홍보 관점으로 이야기 하고, 저는 이게 홍보의 문제가 아니고 모임을 구성하는 방법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플랫폼은 2000년대 초반에 이미 피크를 친 거고 지금은 코디네이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임이 기획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획이라는 게 매개인데 동호회 안에 있는 개인들을 매개하는 종류의 코디네이팅이 일어나야하고 그것이 어떤 사업으로 디자인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 임승관(진행)

개인에 대한 이야기. 확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신경 쓰는 게 홍보 같아요. 우리(인천 문화바람)도 축제를 하는데 광역시가 많아 예산 때문에 80개 팀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번의 워크숍 후 필터링이 되기는 했으나, 선정된 팀 모두가 장소, 콘텐츠, 라인업 모든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예산을 함께 정하다보니 포스터, 홍보비용을 없애도 되는 사업이 되었고, 80팀이 참여를 해서 831명이었는데 이들이 2명씩만 데리고 와도 공간이 모자라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홍보를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 되었고, 결국 정말 홍보 없이도 사람들이 찾아 왔습니다. 새로운 기획과 방향에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성이 존중되는 공동체라면 이게 모순인 것 같지만. 그 어색함을 어떻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생활문화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주제로 넘어

가기 전, 더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현장 플로어 참여 토론 ③

저는 청주생활문화센터에서 온 김아미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예술을 전공한 적도 없고 경제적 활동시간에 나머지 시간을 쉬려고 공간을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보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는데 제일 큰 문제는 문화랑 예술을 접목시키는 데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화예술을 문화예술진흥원 등 혼재되어 쓰이다 보니 어느 순간 문화는 예술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생긴 것 같구요. 프로그램도 보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는데 전제 자체가 시민은 예술 하위에 있고 예술가들이 상위에 있는 엘리트로서 시민들을 예술가로 육성하자라는 식의 프로그램이 생활문화 프로그램처럼 인식되는 부분들을 많이보게 됩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예술이라는 속성 자체가 일상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에 변화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술전공자들이 아닌 시민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관계 부분에서는 제 생각에는 느슨한 관계와 개인주의를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동아리가 굉장히 탄탄하고 유지되는 것을 보면 여유가 있는 50대, 60대들이고 청년들을 잘 오지 않습니다. 20~30대, 40대들은 동아리를 많이 하지만 그것이 IT기반으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동아리 결속하더라도 원하지 않으면 안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집단성을 발휘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프로그램 구성할 때는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화는 무엇일까라고 출발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것들, 예를들어, 서울에 미세먼지가 너무 많은데, 미세먼지를 없앨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의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우리의 삶과 관계된 것을 하는 것. 예술을 제외하고 생활밀착형의 것들을 만들어야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 임승관(진행)

문화예술을 혼용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문화예술 순서가 바뀌었다고 하셨었어요. 주거문화, 생활문화. 그럼 예술문화 라고 해야 하는데 문화예술로 바뀌어 쓰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인 것 같은데요. 예술 활동하는 문화라고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주민들에게 이로움이 없으면, 그리고 필요하지 않으면 당장 내가 겪고 있는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어떤 커뮤니티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정부의 생활문화축제는 왜 하고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 문예진

전국생활문화축제가 4회째 하고 있는데 저는 올해 처음 참여했습니다. 전국생활문화축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중앙에 모여서 동호회 발표를 하는 방식이 맞는가라는 논의가 첫 번째로 든다면 저는 긍정적입니다. 저희도 참여 동아리가 대구 안에서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자기 동네에서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같이 모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7월에 대구에서 생활문화제를 운영했었어요. 작년 방식이 동호회 공연하고 몇 개의 부스를 두고 있는 체험형 축제였는데, 올해는 그 방식을 탈피해서 여러번의 기획회의를 했었고, 3개의 미션이 있었는데, 동아리 공연 안 된다, 무대 안 된다, 부스 안 된다 였습니다. 그러면 동아리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내린 결론이 아담한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을 구역별로 존을 나눴다. 멜로디존, 프리존, 핸드메이드존, 힐링존을 나눠서 존이 가지고 있는 의미 안에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동호회도 있었고 일반 개인도 있었구요. 힐링존에는 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도 있었습니다. 공연 위주가 아니라 무대가 없어 바닥에서 진행하였고 작년에는 사업비 1억 5천 중에서 동호회 공연활동비와 무대값만 6천을 썼었는데 올해는 그 비용으로 동호회 팀들의 전야제를 위해서 6개팀 150분이 같이 연습해서 콜라보 공연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전국생활문화축제를 경험해보면서 방식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 방식을 기본으로 가긴했지만 전시부터 여러 가지 요소들 많이 넣으셨고요. 이런 방식의 축제로 간다면 함께 노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차년도에는 동호회들이 콜라보를 적극적으로 한다던지.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좀 더 다른 방식을 찾으셔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또한 지역으로 내려가야 하는 게 아닌가란 고민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역으로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하는 방식에서 축제 운영 방식하고 운영매뉴얼이 정리가 되면 지역에 내려가더라도 정교한 방식 안에서 특색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년 새로운 방식의 시도, 실험이 있어야합니다.

내려갔을 때 제 생각에는 2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지역공모방식과 권역별 방식.

전국생활문화축제를 한다면 몇 개의 권역이 있으니 자율적으로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축제를 준비하고 연계해서 협의를 통해 조율하면서 가장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중심이 되고 축제 전체 운영을 같이 협의하는 방식.

전체 매뉴얼이 정해져야 지역으로 내려가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의 축제가 3회 이상 진행된다면 어떤 게 더 잘 될 수 있느냐를 고민할 수 있는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 **임승관(진행)**

전국생활문화축제는 이렇게 해야한다라는 방식이 정착된 다음에 그 방식이 어디에 내려가더라도 되는 단계에 들어서면 좋겠습니다.

### **백선훈**

고민만 계속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동호회 활동, 생활문화활동을 하다보면 함께 모여 놀 수 있는 장을 많이들 원하시는데 그런 과정들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주체적으로 참여를 했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과정으로써의 축제가 의미 있고 좋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나름 중요하고 전국단위에서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앙 집중적인 사회여서 지역색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고 지방의 특성이 강한 일본이나 다른 나라처럼 두드러지지 않지만 지역의 문화를 점점 발전시켜나가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면 전국생활문화축제가 지역에 내려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에 대한 매뉴얼 등 말씀하셨지만 순회를 하던 경연을 해서 공모를 하던 회를 거듭하면서 차차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경계해야 할 것이 경험이 단절되는건데 추진단, 기획단이 있으니 올해의 경험이 내년에 단절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획단들이 지역에 계신 생활문화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지속적으로 계속 준비하고 그 주체들이 그 안에서 성장하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같이 논의를 하는 구조에서 생활문화축제들이 같이 참여해서 관계를 맺을거냐 그리고 개인, 단체 기업들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해서 끊임없이 논의하느냐 이런 과정 자체가 중요할 것 같고 그 지역 문화 자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게 아닐까요.

그런 차원에서 생활문화축제를 과정으로 봐야합니다. 그 결과물은 빛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과정자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콜라보 공연 등의 협동작업건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 개인들의 욕망들을 잘 조합하고 논의하다보면 작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좋았는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발전시키면 되고 이러한 건 같이 해볼 수 있을거야 하며 이런 노하우들이 계속 개발되고, 쌓이고, 축적되고 발전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유진

최소한 이야기지만, 패널들이 각자 역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제 역할은 호트러뜨리는 역할인 것 같네요. 요즘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전환을 할 것이냐에 있어요. 첫 단추를 어떻게 하면 잘 꿰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실무적인 이야기들도 중요하지만, 축제와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가 참여할 것이냐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누가 축제에 올 거냐. 이 질문을 다시 하면, 이걸 시민축제인데 누가 시민인가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술분야를 일상생활이 예술과 떨어져있기에 아예 제외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시고, 좀 더 프로그램을 가볍게라는 얘기도 많이들 합니다. 보통 이야기가 쪽 되면서 끝의 정리가 어떻게 되버리냐면 예술가가 시민이 아니다. 기획자가 축제를 기획하며 참여를 하면 전문가인가? 활동가들을 뽑음. 코디네이터. 매개자라고 불리는데 시민축제에서의 매개자들은 뭘까. 개들은 시민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생활문화는 사람의 중복성 및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거죠. 저는 기획자면서 개인이면서 공동체의 구성원이면서 예술가의 친구이면서 직장인일 수 있는 것이고, 생활문화를 이해하려면 중복성 정체성을 인정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단순하게 예술가나 기획자나, 시민이나 활동가나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정책에 쉽게 다루기 위해서이고, 역할을 부여하기가 쉬우니까. 이걸 따로 떨어뜨려놓지 않고 시민축제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냐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의 정책이 시민의 삶을 앞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보지 않는 방식이 무엇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1~2년 동안 실험을 해보았어요. 사랑방클럽 같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이로움을 생각하죠. 경제적인 이로움을 빼고 나서 문화에서 이로움을 얻어야하는데, 중장년층 많이 들어오시는데, 이 사람들한테 주는 문화적 이로움이 뭐냐. 그러면 삶과 죽음의 얘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거죠. 중장년층들이 삶의 전환기를 맞았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갭이어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오는 거예요.

정책은 어떻게 가냐면 좀 더 가볍게, 좀 더 재미있게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진지해지지 않고 참여 동기도 생기지 않게 됩니다. 동기들을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네 말이죠.

정책적 틀 안에서 잘 하는 방법을 고민하는데 이걸 넘어서야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에 생활문화2.0, 또는 넥스트 생활문화로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은 사실 정체가 없고 예술가들 모여 있고 기획자들 모여있고 직장인들 모여있는 게 시민입니다.

다양성 있는 주체들을 모을 때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이나? 3가지 정도 이야기 할 수 있

는데 공동성 - 공통의 터전. 관심사들 - 좋아하는 게 비슷하면 모일 수 있음. 세번째가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사람들은 모입니다. 시민들은 피부에 와닿을 때 모입니다.

3가지 거점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형식적 구분으로 우열을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배제 방식으로 얘기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는 방식으로 얘기가 되어야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식을 겪으면서 느낀 것. 결혼이라는 과업을 전혀 만나보지 않았던 두 가족이 만나서 논의하고 협의하는건데, 저 사람을 감당할 수 있나 없나를 보게 되고, 그것을 다 검증하도록 디자인 되어있다는걸 알게 되었어요. 관계를 다 검증하고 결국 같이 살아야하니까 어느 정도 지점에서 조심해야하고 어느 정도 친해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축제도 똑같다고 봐요. 다양한 협업을 하게 되는 부분들. 본질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 임승관(진행)

축제에 대한 본질적인 것. 본질성, 이슈에 대한 공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축제와 공연을 분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축제는 다 함께 만드는 것인 반면 공연은 관객이 있고 관찰자가 있고 앞에 기획자가 있죠. 이것을 다 같이 '축제'라고 해버리니까 혼동스러울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기획을 넘나 드면서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의미를 결정해서 이루는 것으로 폭넓게 쌓아가는 것을 축제라고 합니다.

생활문화를 매개를 할 수 있는 것은 축제로 봐야하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발표합니다. 관람자 입장을 넘어서서 이것이 계획되는 순간 홍보, 적극적인 참여 등이 한 번에 발현되고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축제를 반대의 의미로 보시는 것이 있는지? 하지말자 의견은요?

### 플로어 참여 토론 ④

영월문화재단 안승배입니다.

전국생활문화축제가 전국적으로 하며 다 모여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즐기는게 동호회라고 한다면 지원사업도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작은 규모로 동호회들이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동호회들이 내가 이런 것을 만들어보고 싶다 하면 그들의 기회를 조금 받아서 동호회나 개인 중심이 되어서 기획 및 축제를 만드는 방식은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거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앨범도 가지고 와서 노래도 듣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 임승관(진행)

축제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더 주세요.

### 신호진

생활문화진흥원 기획운영팀장 신호진입니다.

중앙 단위에서 축제 형식이라는 게 과연 전 국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앙 단위에서 축제를 하는 이유는 전국적인 확산 때문이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느껴지는 관심과 기대가 2014년도 처음 시작할때와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

는데, 이렇게 모여서 정의도 말씀해주시고 하는 부분에서 매우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단위에서 축제는 전국적인 확산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축제를 통해서 관심 없는 분들도 물론 많지만 방법을 몰라서 즐기지 못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정책적인 역할이 이러한 확산에 대한 성과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처음 1회 때 시작했을 때는 전국생활문화동호회 축제였습니다. 동호회 축제였습니다. 지금은 전국생활문화축제로 바뀌었죠. 명칭을 바꾸게 된 것은 기존에 해왔던 고민이 무엇이었던냐면 생활문화가 동아리만이 모인 자리냐,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구지 왜 하느냐. 모아서 발표하는 거냐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으셨죠.

향후 보다 발전적인 축제가 되려면 생활문화 영역이 꼭 예술적 장르가 아니니까 일상 속에서 개인이나 단체 등이 자기만의 문화, 활동들을 보여줄 수 있는 확산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축제가 개최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영역, 분야들을 일상 속에서 즐기는 모습들도 보여줄 수 있는 확대 개념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생화문화라는 이름처럼 보다 생활문화스럽게, 생활문화답게 축제의 형태와 내용도 조금씩 바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